

전기전자/IT HW

관세로 인한 북미 IT 세트 수요 영향 점검

전기전자/IT부품

Analyst 양승수

02. 6454-4875

seungsoo.yang@meritz.co.kr

[세이프가드 전후 미국 내 가전 점유율 점검]

- 트럼프 1기 당시 2017년 월폴의 청원에 따라 2018년부터 한국 세탁기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표1)
- 다만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내 가전 시장 점유율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그림1). 이는 두 업체 모두 생산기지를 옮김에 따라 관세 부담을 회피했고,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없었기 때문

[북미 TV 시장 수요 점검]

- 2024년 기준 북미 TV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 Onn(월마트 자회사), TCL, Hinsense, LG전자 순. 또한 북미 TV 시장의 대부분 물량(약 2,500만대)은 멕시코에서 수입되며, 나머지는 중국, 베트남, 태국, 대만 등에서 공급
- 생산기지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관세로 인해 실제 타격을 받는 것은 미국 브랜드인 Onn, Insignia, Roku, Amazon 등으로 파악
- 중국 브랜드 중 TCL은 관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중국 +멕시코 TV 생산), 다만 Hisense는 멕시코에서만 북미향 TV를 생산하고 있어 관세 영향이 제한적
- 즉, 이번 관세 도입과 관련해 북미 TV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점유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일부 기대가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 업체들이 오히려 관세 노출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
- 또한 앞서 언급했듯, 단순한 관세 부과만으로는 브랜드 이미지에 실질적인 타격이 발생하기 어려워 시장 점유율 변화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트럼프 안보 관련 제재 이후 미국 내 중국 스마트폰 출하량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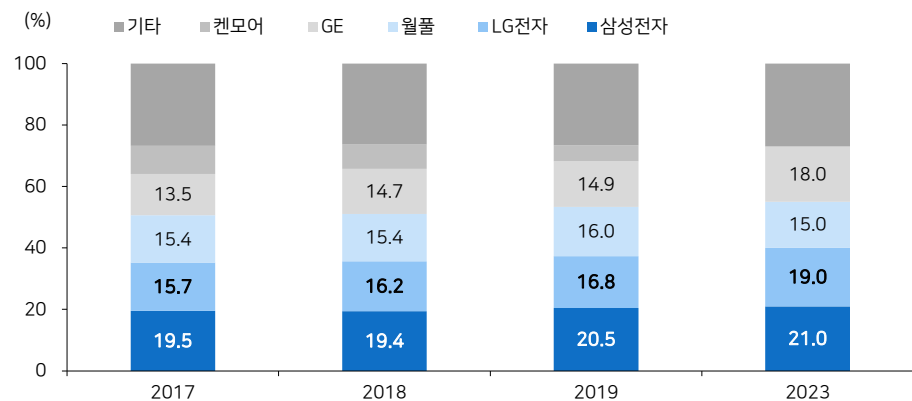
- 2018년 트럼프는 단순한 무역조치가 아닌 국가 안보 관점에서 화웨이 제재를 시행
- 이후 화웨이는 안드로이드 서비스 탑재 중단과 인텔과 퀄컴, 자일링스, 브로드컴 등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부품 공급 중단으로 제조 어려움 심화되었으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내 점유율도 큰 폭으로 감소
- 또한 미국 내 중국산 스마트폰 사용이 안보 문제로 간주되면서 10% 전후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던 ZTE의 미국 내 출하량이 급감
- 즉, IT 세트 시장에서 점유율 변화를 유도하려면 관세 이상의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수반하는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며, 현재의 관세 부과만으로 점유율 변화가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시각은 경계할 필요

표1 트럼프 1기 세이프가드 조치 타임라인

구분	비고
2017.05.31	조사 요청(제소)
2017.06.05	조사 개시
2017.09.07	산업피해 공청회
2017.10.05	산업피해 판정
2017.10.19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의 구제조치에 관한 공청회 개최
2018.02.07	3년간 세이프가드 조치 발효
2020.08.01	월풀 세이프가드 연장 요청 청원서 제출
2020.11.25	월풀 세탁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연장 요청 ITC 만장일치로 승인
2023.02.01	미국 내 세이프가드 해제
2023.4.28	미국 내 세이프가드 관련 WTO 소송 한국 승소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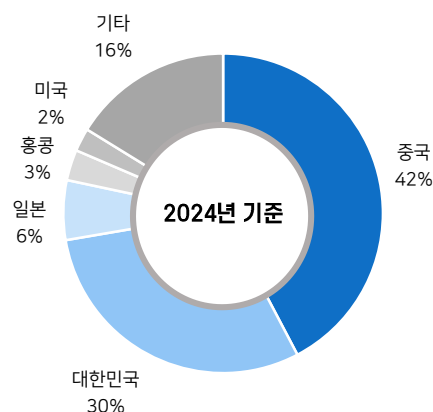
그림1 미국 내 매출액 기준 가전 점유율 추이 (세이프가드 전후 점유율 변화 제한적)



주: 2017년은 세이프가드 발효 전, 2018.02.07 세이프가드 발효, 2021년 세이프가드 2년 연장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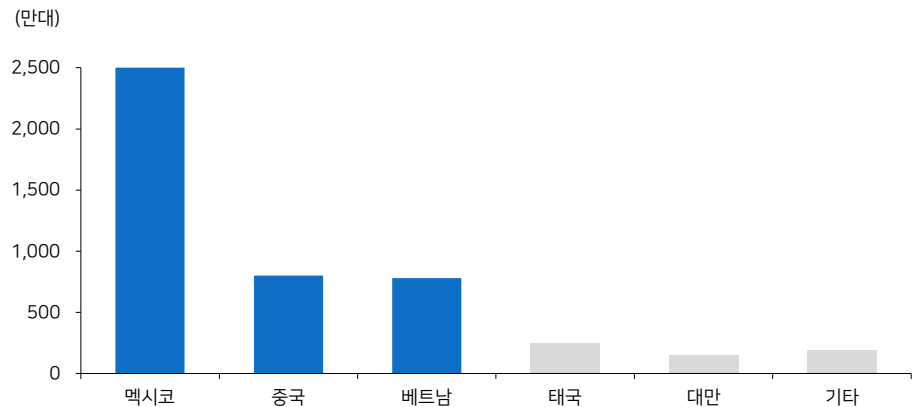
그림2 2024 기준 지역별 TV 브랜드 출하 비중



주: 삼성전자 18%, LG전자 1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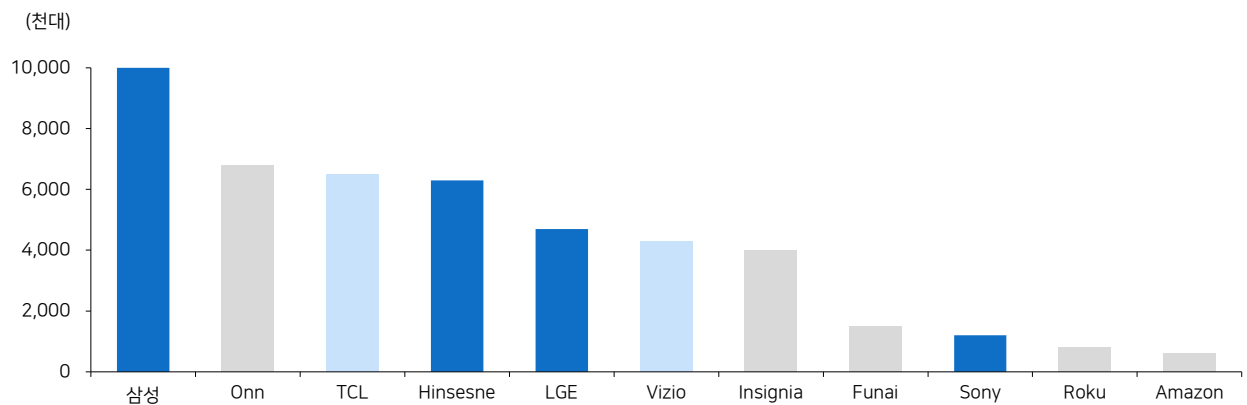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2024년 기준 지역별 미국 TV 수입 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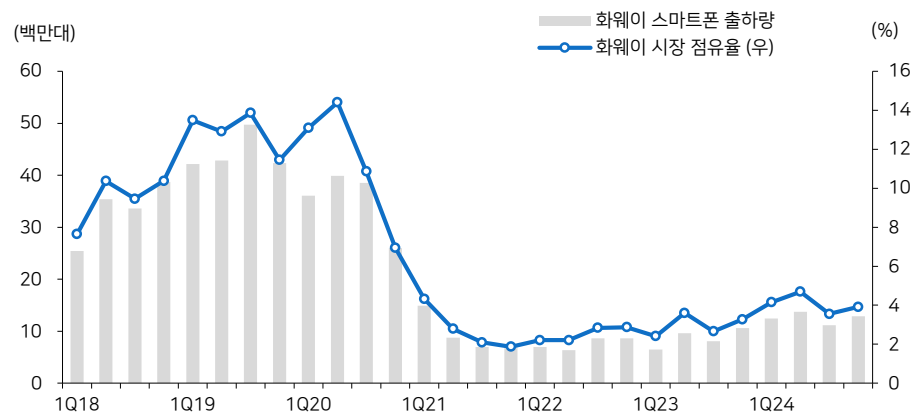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북미 TV 시장 브랜드별 출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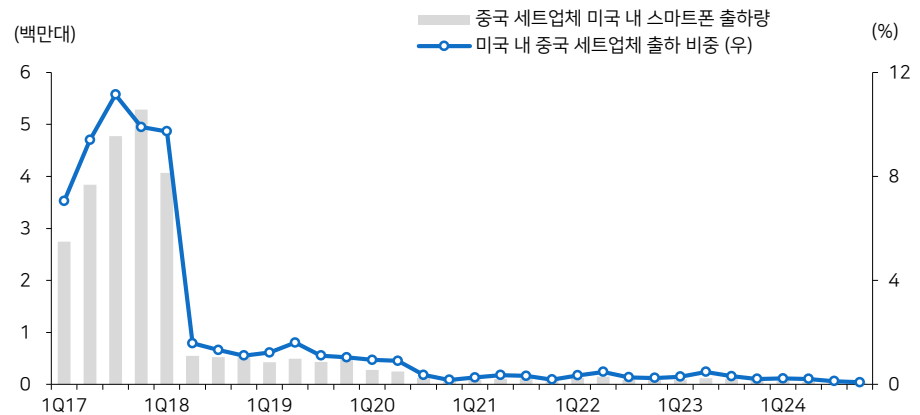
주: 파란색 음영: 생산 100% 멕시코, 하늘색 음영: 생산 일부 멕시코, 회색 음영: 멕시코 외 지역에서 생산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화웨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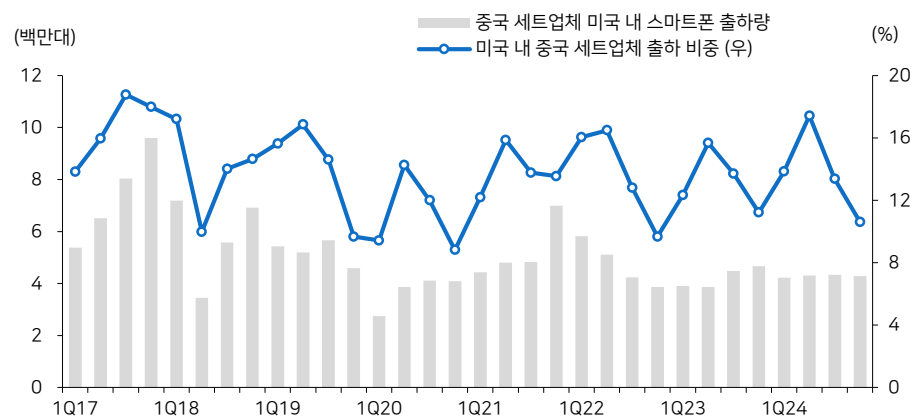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미국 스마트폰 시장 내 중국 ZTE 출하량 및 점유율 추이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미국 스마트폰 시장 내 중국 세트업체 출하량 및 점유율 추이



주: 중국 세트사 : Huawei + Honor + ZTE + Xiaomi + TCL + Lenovo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